

부실한 방역대책이 구제역 확산 불렀다

농가당 1마리만 검사하고 전체 항체형성을 판정 “착유량 줄고 유산 부작용” 주기적 백신 접종도 꺼려 접종 인력·방법도 고민거리

8일 경기도 내에서 울들어 첫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충북 보은, 정읍에 이어 수도권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대책본부에 따르면 100여 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연천군 군남면의 젖소 사육농가에서 이날 오전 10시40분께 10마리 소가 침흘림, 수포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은 이 농장 젖소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경제지주는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86개 가축시장이 임시 휴장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가축방역에 큰 허점이 드러나 개선이 요구된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과 정읍의 발생농가의 항체형성이 현저히 낮았던 것과 관련, 검역당국이 기존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검역 당국은 전체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농가 1곳당 무작위 선정된 소 1마리만 검사하는 방식으로 항체형성을 조사하고 있다. 운 좋게 처음 검사한 1마리의 항체가 양성돼 있으면 해당 농가는 항체형성이 100%로 간주된다. 전국 소 전체 사육 마릿수 314만마리 대비로 보면 0.3% 정도만 검사하는 데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구제역이 잇따라 확진된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각각 20%,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일부 농가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한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백신은 4~7개월 단위로 주기별로 꾸준히 접종을 해야 항체가 유지되지만, 젖소농가 가운데는 원유 생산 시기(7개월)에 착유량 감소 등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 농가 역시 수태 시기에 백신을 맞



8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축산농가에서 광주 북구청 소속 수의사가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

히면 유산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주기별로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역본부는 전했다.

소·돼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고정틀이 없는 축산 농가는 소·돼지를 바닷로 묶어 못 움직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인부 없이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소·돼지를 한 마리씩 접종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수백, 수천마리씩 사육하는 축산 농가에는 큰 부담이다.

이와함께 당국이 백신 접종을 일일이 대신해 주거나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기는 어렵다. 소·돼지를 몇 마리씩 키우는 소규모 농가가 가축방역관리나 공수의사가 현장에서 접종해 주지만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키우는 대규모 농가의 경우 접종 인력을 지원하는 게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읍·면·동 직원을 보내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인력 부족으로 포기한 지자체도 있어 그만큼 방역은 허술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전남 소·돼지 161만마리 백신 접종

공무원 4000명 입회

구제역 예방 접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남도가 공무원 입회 하에 도내 소·돼지 등 우재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에 들어갔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사육 중인 소 48만6000마리, 돼지 112만9000마리 모두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울들어 소 14만5000마리, 돼지 45만2000마리는 이미 접종을 마친 상태로, 오는 21일까지 예방 접종 대상은 각각 34만1000두, 67만7000두다.

5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의 소는 기존대로 시·군이 위촉한 공수의사가 직접 접종한다. 충북 보은 등에서 나타난 구제역 예방 접종 및 항체 발생을 등의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소, 돼지에 대해서는 전남 공무원 4000여 명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농장 관계자들이 접종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리리 젖소농장과 인접한 농가 두 곳의 항체 형성률을 검사한 결과 각각 40%, 20%에 그쳤다. 방역 당국은 애초 충북 지역 소의 평균 항체 형성률이 97.8%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도 소 99%, 돼지 67% 등 항체 형성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육두수의 3% 이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하다 보니 통계상 차이가 생긴 것 같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접종 현장에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도록 시·군에 공문을 보냈다”며 “철저한 관리로 모든 소, 돼지에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고 항체 형성 전까지 차단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부자가 덜 짜게 먹는다

WHO 기준은 초과

국민 3만명 소득수준별 조사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WHO(세계보건기구) 권장치를 크게 초과하는 가운데 소득이 높을수록 덜 짜게, 소득이 낮을수록 더 짜게 먹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신장내과와 구호석 교수팀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3만107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나트륨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인구 가중치를 적용해 한국인 전체 나트륨 섭취량 추정치를 계산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4개 그룹 모두 WHO의 하루 평균 나트륨 권장량인 2000mg보다 1000mg 이상을 더 먹었다. 이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하위 25%)의 하루 평

균 나트륨 섭취량은 3251mg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상위 25%)의 3217mg보다 34mg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에 넣 어먹는 소금량으로 환산하면 하위 25%의 그룹이 하루 평균 85mg을 더 먹는 셈이다.

구호석 교수는 “소득이 낮으면 식사가 불규칙하고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국회, 5·18 헬기사격 진상 규명하자”

김동철 의원 결의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은 8일 의원 29명의 서명을 받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5·18과 관련된 역사적 현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전일 발당에서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지금까지도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우리 군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자체적으로 진실 규명 활동을 하고 있으며, 5·18 당시 항공부대 부대원과 시민들의 광범위한 제보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과·배 등 5종, 지진·폭염피해도 보험 적용

올해부터 사과와 배 등 과수 5종의 지진 및 폭염 손해를 입으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2017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7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이 기존 50개에서 유자·무화과·시골 싹갓 등 3개 품목이 새로 추가돼 53개로 늘어난다. 또 사과, 배, 단감, 딸은 감, 갈매 등 과수 5종의 경우 지진과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에

대해서만 보장이 됐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상품 가입이 가능한 젖소의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돼지·가금 농가는 자기부담금을 5%, 10%, 20%로 다양화해 농가 선택의 폭을 늘렸다.

이 밖에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할인·할증제도를 개편해 사과·배 농가에 대한 보험료 환급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농업인 고용화 현상이 심화한 점을 고려해 일부 상품의 가입연령을 84세에서 87세로 확대하는 등 상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유령어업’ 피해액 3800억...전체 어획고 10%

페그물 등 바다쓰레기 탓...꽃게 피해 최대

분해되지 않는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 등 어구가 바다에 버려져 떠돌면서 불필요하게 물고기를 잡는 이른바 ‘유령어업’의 피해 규모가 한 해 우리나라 어획량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령어업의 피해액은 연간 3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한국 어획고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꽃게의 피해가 크다. 지난해 연근해 꽃게 어획량(1만2496t)이 2015년(1만6373t)보다 24% 줄어든 데는 유령어업의 영향도 있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바닷속에서 2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 어구 개발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22가지 종류 친환경

어구를 선보였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이후 모두 487억원(국비 341억원, 지방비 146억원)을 들여 기존 어구를 친환경 어구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8개 업종의 어선 460여 척에 ‘썩는’ 친환경 어구를 보급해 모 두 9개 업종 500척의 어구를 친환경 재질로 대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부산 KTX역 회의실에서 어구생산업체 대표, 국립수산물학원, 수협중앙회 관계자들과 함께 ‘2017년 생분해 어구 품질관리 간담회’를 열어 생분해 어구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보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역사업자/주재기자 모집

독립언론협동조합을 지향하는 **일요신문호남**이 함께 성장할 지역사업자와 주재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 광주, 전남북 전지역 (일부 지역 마감)
- 모집인원**
- 각 지역 1명
- 모집기간**
- 2017. 2.15일 한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통
이메일(ilyo66@ilyo.co.kr)로 제출하기 바람.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일요신문 호남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69, 대원빌딩 13층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실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47)	광주교육대학교(157)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7. 3. 3.(금) 08:3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7. 3. 4.(토) 08:3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7. 3. 4.(토) 14:10 (특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7. 3. 6.(월) 14:10 (고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6. 3. 2.(목) 08:3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6. 3. 4.(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1. 18(수)~3. 4.(토)	2017. 1. 18(수)~3. 4.(토)
수업기간	2017. 3. 3.(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3. 2.(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장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장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62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전문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2017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7년 1월 23일(월) ~ 2017년 3월 10일(금)
- 교육기간: 2017년 3월 29일(목) ~ 2017년 6월 8일(목)
- 수강료: 20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geil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0621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1학기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 오라인신청: 과정명(광) 수강신청) 핸드폰인증) 신청) 수강료납부
- 오프라인신청: 방문접수, Fax접수(520-4245), 전화접수(520-4241~4243, 4248)
- 수강료: 20만원 (예금주: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국민은행 773901-01-476736
- 기간안내: 수강신청기간: 2017. 2. 1(수) ~ 2. 28(화)
교육기간: 2017. 3. 6(월) ~ 6. 12(월)
매주 월요일 주간 3시~5시 야간 7시~9시
-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